



파리 북쪽 생 투앙 벼룩시장의 초입. 19세기 후반 파리에서 쫓겨난 하층민들이 조성한 시장은 파리의 상징으로 거듭 났다.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고물더미 속 숨은 보물 찾는 서민들의 ‘별천지’



파리 남쪽 방브 벼룩시장. 생 투앙 시장이 전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 방브는 파리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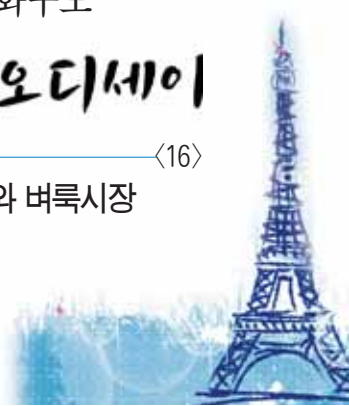
파리를 주제로 한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한 장면. 주인공은 악혼녀와 생 투앙 벼룩시장을 산책하다 우연히 음반가게에서 잃었던 LP를 찾는다.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16〉

파리와 벼룩시장



‘벼룩시장’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 민간 출판사의 한국어 사전에 오르기 시작해 1999년 국립국어원이 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면서 정식 우리말로 인정받았다. 국립국어원의 사전에는 “프랑스 말 마르세 오 푸스(marche aux puces)를 번역한 것”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같은 뜻의 영어 단어 ‘플리마켓(flea market)’도 벼룩시장의 직역인

1870년 성밖으로 쫓긴 하층민들이 열어

의류·가구·장식품 등 테마별 14곳 성행

은판사진 발명 다게르 작품 발견되기도

생투앙, 年 1천만 방문…관광 필수코스

것을 보면 중고품을 내다파는 만물시장, 벼룩시장의 시작은 프랑스인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파리에서 꼭 들러야 할 필수 여행코스라 빠지지 않는 벼룩시장의 시작은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70년대 파리 시내에서 활동하던 낭마주, 고물장수, 집꾼 등 최하층민들이 성 밖으로 쫓겨났다. 도시 정비가 막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위생을 해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1884년 파리 시장 으젠 푸벨은 낭마주이나 거지 등이 쓰레기를 함부로 파헤쳐 길거리가 지저분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상자에 넣도록 법령을 제정했다. 이 규칙을 만든 시장의 이름을 딴 ‘푸벨(poubelle)’은 쓰레기통이라는 뜻의 보통명사가 됐다.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밤마다 너무 시끄럽게 떠돌았기 때문이다. ‘달빛 사냥꾼’이라는 별칭처럼 밤이 되면 이들은 온 도시를 돌며 고물을 수집하고 쓰레기를 파헤쳤다. 끝으로 이들이 ‘사냥’한 물건들을 팔고도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성 밖이 유리했다. 파리의 3대 벼룩시장은 각각 북쪽, 동쪽, 남쪽 성 밖에 위치한다.

‘벼룩시장’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파리 최대 규모인 생 투앙 벼룩시장의 자료에 따르면 한 낭마주이가 고물을 파는 노점상의 진열대를 보며 “이것 보게, 벼룩을 다 팔고 있네!”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돼 사람들 사이에서 벼룩시장이라 불리게 됐고, 이후 1900년 경부터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벼룩시장’이라고 적힌 우편엽서가 팔리면서 이 표현이 굳어졌다고 한다.

생 투앙 벼룩시장의 공식 개장은 파리 시내에서 공식적으로 ‘쓰레기통’이 탄생한 이듬해인 1885년으로 기록된다. 이 때부터 생 투앙 시(市)가 물건을 파는 상인과 장소의 청결, 안전 등을 관리 감독하기 시작했다. 입소문을 타고 생 투앙 시장의 명성이 파리지역들에게 널리 퍼지자 주말마다 이렇저런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과 산책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진풍경은 1910년을 전후해 언론에 소개되면서 벨 에포크 시대 파리지역에게 주말의 필수 산책코스가 됐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돈 꽤나 있는 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생 투앙의 시장을 주목했다. 이들은 시장의 땅을 매입하고 상인들에게 세를 받았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것은 1920년 1만3천 평방미터 규모로 개장한 베르네즈 시장이다. 유배 중이던 알바니아 귀족 말릭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다가 1942년 자신의 가꾸던 밭 3천 평방미터를 시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차례로 작은 시장들이 열려 지금은 의류, 가구, 장식품 등 테마별로 14개의 시장이 포진하고 있다.

1970년대 문을 연 고급 골동품 전문 세르페트 시장은 시트로앵 자동차 정비소 건물을 매입해 그 자리에 시장을 지었는데 관청에 건축신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20명이 넘는 상인들이 활발하게 장사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자 관청이 이 시장에 대한 행정제치 등 조치를 포기해야 했다.

생 투앙 시는 2001년 벼룩시장 일대를 ‘건축, 도시, 농촌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 조치를 통해 건물의 외벽이나 간판 등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건물의 신축, 해체, 개조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벼룩시장의 건물들이 건축적으로 가치를 지니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생 투앙 벼룩시장이 품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 자체를 문화재로 판단한 것이다. 생 투앙 벼룩시장을 다니다가는 사람은 연간 1천만명이 넘는다. 파리에서 쫓겨 밀려

난 가장 밀바닥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별천지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셈이다.

파리 북쪽의 생 투앙 벼룩시장이 규모로 승부해 전세계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이다면, 남쪽의 방브 벼룩시장은 현대 파리지역들이 선호하는 비교적 조그만 규모의 벼룩시장이다. 생 투앙 시장에서 넘치는 행인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지만, 다소 비인간적인 상술 또는 너무 큰 규모에 실망했다면 방브 시장에서 여유롭게 골동품 사이를 걸어보는 것도 좋을 일이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1989년 어느 토요일 오전 방브 벼룩시장에서 세계의 사진 역사를 뒤집을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600 프랑에 팔린 조그만 크기(5.8X4.5 cm)의 인물 사진. 당시 시장 당 최저 임금(약 4.50 유로)이 현재(9.40 유로)의 절반도 안 됐던 점을 감안하면 600 프랑이란 금액은 지금 가치로 40 유로(약 5만6천원)에 불과했다.

방브 시장에서 사진을 샀던 수집가 마크 파느는 그로부터 10년 후 사진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사진이 은판사진술을 발명한 다게르가 1837년 찍은 위에 씨의 초상이라고 주장했다. 잡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다게르 전문가들은 그 사진이 진짜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다게르의 사진이 맞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게르가 1838년 2월에 썼던 ‘최근 초상 사진 작업을 진행했는데 꽤 잘 나왔다’라는 글 등을 근거로 들이대며 공방을 이어갔다. 미국 전문가들의 몫이 역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최초의 인물 사진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논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다게르의 초기 사진은 주로 풍경이었으며 1839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피카소나 르누아르, 세잔 등 파리에서 활동했던 유명 화가의 습작이 벼룩시장에서 발견됐다는 외산이 종종 나오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습작에는 화가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아는, 그들의 그림과 스타일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만 알겠지만, 혁명의 도시 파리에서 ‘민중’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하층민들이 내몰려 만든 시장 마을이 오늘날 파리의 상징 중 하나가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서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서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차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차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차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서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다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 <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 1644-2261